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붐 조성 '물노래 콘서트' 성황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붐 조성을 위해 광주지역 비영리민간단체 CE21이 마련한 '물노래 콘서트'가 지난 20일 오후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6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진은 공연 현장 모습. /김애리 기자 kki@kjdaily.com

시민 하나돼 세계수영대회 성공 이루자

'얼쑤' 전통악기·모듬북에 '불' 더해 열기 후끈
추가열·황규영, 감성 촉촉 노랫가락·입담 선사
대회 마스코트 '수리·달이' 소개…포토타임도

내년 7월 열리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마련된 '물노래 콘서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광주지역 비영리민간단체 CE21은 지난 20일 오후 광주 남구 구동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붐 조성을 위한 특별 이벤트로 '물노래 콘서트'를 개최했다.

'With 광주, 평화의 물결 속으로'를 주제로 한 이날 콘서트에는 김광아 광주시양궁협회장,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 광주시각장애인협회 회원들을 비롯, 6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CE21(비영리민간단체)이 주최하고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TV가 후원했다.

이날 행사는 선착순 무료입장으로 진행됐으며, 본 공연 시작 전부터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 로비가 관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김태일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광주지역 전통타악그룹 '얼쑤'의 무대로 문을 열었다.

푸른색 조명 아래 얼쑤 단원들이 검은 옷을 입은 채 등장했다. 이들은 꽹과리, 장구, 모듬북과 같은 전통 타악기와 심벌즈, 퍼커션 등 서양 타악기와 함께 태평소 등 여러 악기를 자유자재로 연주하며 흥을 돋웠다.

'인수화풍', '락(樂)의로(路)' 등 다채로운 퓨전 타악의 레퍼토리를 보유하고 있는 팀으로 알려진 얼쑤답게 관객들에게 최고의 볼거리를 선사했다.

특히 '물노래 콘서트'에 '불'을 사용한 공연은 그야말로 압권이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채를 이용해 모듬북을 연주하고, 리듬에 맞춰 전통무용을 선보이는 장면에서 관객은 박수와 함성을 질렀다.

얼쑤의 공연에 이어 본격적인 노래 무대가 시작됐다.

먼저 싱어송라이터 추가열이 직접 기타를 들고 라이브 연주와 노래로 고(故) 김정호의 '하얀 나비'를 첫 곡으로 선사했다. 이어 자신의 히트곡인 '나같은 건 없는 건가요', '소풍같은 인생'을 연달아 들려주는 한편, 노래에 얽힌 에피소드를 관객에게 이야기해주며 입담을 뽐냈다. 앙코르 곡으로 '백만송이 장미', '동백아가씨'를 들려줬다.

이어 '나는 문제없어'로 1990년대 인기 돌풍을 일으킨 인기가수 황규영이 출연했다. 최근 '재즈 가수'로 장르를 선회한 가수 황규영은 이날 'Flying to the moon'을 시작으로 '나는 문제없어', '스윗 발렌타인'(Sweet Valentine) 등을 선사하며 관객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지난 20일 '물노래 콘서트' 공연장 앞에 마련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홍보 부스 모습.

관객들은 가수들의 모습과 노래를 담으려 스마트폰을 들고 사진, 영상을 촬영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은 물론, 곡이 끝날 때마다 가수에게 박수와 함성으로 화답하고 "앙코르"를 외치는, 감동의 도가니였다. 또한 관객과 출연자가 함께 "수영대회 파이팅!"을 외치며 행사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

가수들의 공연이 끝나고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마스코트인 '수리'와 '달이'가 무대에 올라 관객을 만나는 자리도 마련됐다. '수리'와 '달이'는 물에서 생활하는 동물 수달을 형상화한 마스코트다. 공연장 로비에서 '수리'와 '달이'가 함께하는 포토타임도 마련됐다.

행사를 마친 후 김혜연(59·여)씨는 "전통타악 얼쑤 공연부터 가수 추가열·황규영의 무대까지 오랜만에 신나는 공연을 즐겼다"며 "'물 노래 콘서트'를 통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해 더욱 관심이 생겼고 광주에서 치러지는 국제대회인 만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사의 성공 개최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내년 7월12-28일 광주에서 열린다. /글=정겨울 기자 jwinter@kjdaily.com /사진=김애리 기자 kki@kjdaily.com

광주매일TV kjdaily.com (영상뉴스)

김미숙 作 '꿈을 찾아서-시집가는 날' /작가 제공

오방색 한복 걸친 여성에 꿈·희망 담다

김미숙 작가 서울 노원문예회관 기획초대전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서양화가 김미숙씨가 다음달 4일까지 서울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기획초대전을 갖는다.

김 작가는 오방색 한복을 입은 여인상을 주로 그리며, '꿈을 찾아서'란 주제의 작품들을 선보인다작가는 전통 한복을 개량한복으로 현대화·단순화해 그리는 작가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작가는 작품 속에 서정적이고 단아한 여성의 모습과 함께 배경에는 화려한 꽃들을 그려 꿈과 희망을 이루려는 소원을 담았다.

김 작가는 "점점 이질화돼 가는 사회 속에서도 한국의 주체성을 잃지 말자는 의미에서 우리 전통의 한복을 캔버스 위에 면처리 기법으로 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작가는 지난해 남촌미술관 개관기념 특별초대전, 프랑스, 중국, 일본 등 국내·외 초대전, 목우회, 대한민국회화제 등 다수의 그룹전과 아트페어 등에 참가한 바 있다. 현재 한국미술협회 이사로도 활동 중이다.(전시 문의 02-951-3355) /정겨울 기자 jwinter@kjdaily.com

광주 향약 발전·공동체 의식 제고 세미나

광주·전남발전협의회 주최
내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서

광주 향약의 발전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광주·전남발전협의회는 오는 24일 광주향교 유림회관 대강당에서 '광주 향약 발전과 공동체 의식'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갖는다.

이 세미나는 조선시대 향약이 최초로 시행된 곳이 광주 남구 칠석동이라는 데 착안해, 조상들이 남긴 귀중한 유산인 향약을 오늘날에 맞게 재해석하고 장점을 계승·발전시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광주에 처음으로 향약을 소개해 시행한 부용 김문발 선생 이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시킨 필문 이선제 선생 등의 인물을 재조명한다.

또한 향약의 시행을 위해 이용했던 부용정, 양과동정 등 문화재로 지정된 정자들을 돌아보며 광주가 향약의 본고장임을 알리게 된다.

행사의 좌장은 최영관 전남대 명예교수가 맡고, 박경하 중앙대 역사학과 교수가 '조선시대 향약과 광주 향약의 성격'을, 전영평 대구대 도시행정학과 명예교수가 '제4차 산업혁명시대 공동체 정신의 중요성과 향약의 역할'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

토론에는 고선주 광남일보 문화특집부장, 김선상 광주 남구 문화정책실장, 김선술 광산포럼 설립자, 김용집 광주시의원, 이종일 향토문화개발협의회장이 참여한다.

박재순 광주·전남발전협의회장은 "오늘날 사회가 물질문명으로 인해 미풍양속 공동체 정신이 실종되고 집단이기주의가 심화돼 가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새로운 정신운동, 사회통합, 소통의 밑거름이 될 옛 향약정신을 재평가해 오늘을사는 지혜를 다시 배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겨울 기자 jwinter@kjdaily.com